

# 번역철학 - 그 계보학적 탐구\*

윤성우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과)

## Yun, Seong-Woo. The philosophy of translation - Its genealogical research.

This paper aims at establishing the interface between philosophy and translation as one of the theoretical tools with which to broaden the scope of translation studies. Plato is posited to belong to the sense-oriented translation theorists based on his claim on the metaphysical divisibility of language. Schleiermacher cited text author's intervention as the dividing factor betwee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Benjamin resisted to accept the subordinate and marginal status of translation and proposing a new approach to translation: translation-to-the-letter. The article also looks at Mounin's endorsement of translator's transparency, followed by a discussion of Venuti, known for his resistance of the then-mainstream tendency and his advocacy of foreignizing translation. It is proposed that further academic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fforts to overcome the peripheral, marginal, and subordinate status of translation, and that towards this end, philosophy can be instrumental.

**Keywords:** philosophy of translation, Berman, Plato, Schleiermacher, Benjamin, Mounin, Venuti, translation to-the-letter, translation transparency

### ■ 차례

- |                            |                  |
|----------------------------|------------------|
| I. '번역철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번역론              |
| II. 몇몇 번역학자의 (번역)철학적 계보    | 3. 벤야민의 언어론과 번역론 |
| 1. 플라톤의 언어론과 '추정된' 번역론     | 4. 무녕의 번역론       |
| 2. 슐라이어마허의 언어론과            | 5. 베르만의 언어론과 번역론 |
|                            | 6. 베누티의 언어론과 번역론 |
|                            | III.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통역과 번역』 15(1)호에 게재된 논문을 확대·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I. ‘번역철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철학’, ‘종교철학’, ‘사회철학’ 등등 철학의 이러한 하위분과에 익숙한 독자에게도 여전히 ‘번역철학’이라는 분과와 그 논의는 아주 생소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번역철학’은 그 연구대상이 ‘번역’이고 또 그것이 ‘언어’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다 보니, 많은 독자는 가장 가깝게는 ‘언어철학’과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번역에 대한 이러 저러한 입장이나 사유를 펼치는 대부분의 번역이론가가 ‘언어’ 일반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은 밝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철학은 언어철학과의 모종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두 분과, 즉 번역철학과 언어철학 사이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철학을 자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언어철학에서 논의되는 ‘언어’란 대개 보편적 차원의 언어,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개별적 자연언어 및 그 개별성이나 특이성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를 지칭하는 반면, 번역철학에서 다루는 ‘언어’는 대개 자연언어 중의 하나 또는 그 일부를 지칭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 또는 이들이 사물, 사태, 세계와 가지는 관계를 문제삼는다.

여기서 논해지게 될 ‘번역철학’은 반듯한 체계를 갖춘 철학의 한 분과로서 이미 획득되거나 달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막 형성되기 시작한 배아 단계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번역에 대한 철학적 사유나 단상(單相)이 일찍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번역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몇몇 저자들의 말, 또는 적어도 번역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데 밑거름이 될 만한 사유를 펼친 저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